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8월

교육학(음악교육)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의 현황 및 교육과정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강 은 혜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의 현황 및 교육과정 연구

The Research of Current Education of Curriculum
for Musically Gifted Students

2015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강 은 혜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의 현황 및 교육과정 연구

지도교수 김 지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강 은 혜

강은혜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서영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지현 인

2015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3. 선행연구의 고찰	3
II. 음악영재와 음악영재 교육	5
1. 영재 개념	5
2. 음악영재의 개념	9
3. 음악영재 교육의 필요성	14
4. 음악영재성과 창의성 교육	15
III.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현황 및 교육과정 연구: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19
1. 음악영재 교육기관 현황	19
2. 음악영재 교육과정	43
3. 음악영재 교육현황 개선방안	47
IV. 결론 및 제언	51
참 고 문 헌	53

표 목 차

<표 1> 렌줄리 모형에 기초한 음악영재의 특성	10
<표 2> 태진미의 음악영재 특성	11
<표 3>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음악영재들의 특성	13
<표 4>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17
<표 5> 서울·광주교육청 영재교육원	19
<표 6> 서울·광주교육청 음악영재학급	21
<표 7> 선발방법	22
<표 8> 선발대상 및 선발세부전공	23
<표 9> 전공별 실기 과제	24
<표 10> 선발대상 연령	29
<표 11> 선발인원	30
<표 12> 전공별 실기시험곡	31
<표 13> 예술영재교육원 기초과정 신입생 선발전형	33
<표 14> 전공별 실기과제	34
<표 15> 전형개요	34
<표 16> 선발전공 및 선발인원	36
<표 17> 영재학급 선발절차	37
<표 18>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	39
<표 19> 선발전공 및 선발인원	41
<표 20> 실기평가 기준표	42
<표 21> 심층면접 기준표	42
<표 22>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42
<표 23> 예비영재 창의성 프로그램	45
<표 24> 시간 운영 계획	46
<표 25> 서울·광주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48

그림 목 차

[그림 1] 렌줄리의 세 고리 모형 7

ABSTRACT

The Research of Current Education of Curriculum for Musically Gifted Students

Kang, Eun-Hae

Advisor: Prof. Kim, Ji-Hyun, Ph. 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musically-gifted students, and the necessity for specialized education with musically gifted students,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conditions and curricula of education institutes for musically-gifted children in Seoul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ere a total of fourteen educational institutes for musically gifted children authorized by the Seoul Education Office and some of them offered diverse programs including practical music, jazz and musicals in addition to western music.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re was only one Art Education Institute under Gwang-ju Metropolitan City Student Education and a Cultural Center, and it did not have diverse programs available except a western music program. There were five classes for gifted students in Seoul while there were only two in Hanam Elementary School and in Yeonje Elementary School. In addition, there were no university-affiliated musical education institut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hile there were two in Seoul, one at Konkuk University and the othe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

In analyzing the curricula for musical education of gifted students,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ere only a few programs and systems that could nurture musical potentiality and ability in gifted students. In these condition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better education in musically-gifted students:

First, more education institutes for musically-gifted students are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nectivity in education for gifted students. Second, diverse curricula should be developed beyond simple theory-oriented education. Third, the level of selected subjects should be lowered to that of preschool students. Fourth, musically gifted students from local areas should be sought out and developed. Fifth,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education of musically-gifted student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of educational institutes as well as development grouping of education for musically-gifted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문화예술을 통한 전문적이고 잠재된 능력을 가진 인재를 개발하는 맞춤형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영재를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가 발전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이용석, 2008).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4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예술 산업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된다고 발표하였다.¹⁾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예술영재교육 또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즉 2000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을 시행하였다. 특히 예술영재교육은 2003년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의 주관 하에 음악·전통음악·연극·무용·애니메이션 분야의 <예술영재교육 육성계획>이 발표되어 우리나라 예술영재 교육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여러 예술영재 교육기관들에서도 음악영재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음악영재 교육기관들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서울 뿐 아니라 지방도시 또한 교육청 중심의 영재교육원과 음악영재학급들이 생겼으나 교육의 질적인 수준은 열악한 상태로 보인다. 즉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학습 열기로 주당 학교수업시수가 많은 수학이나 과학중심 영재교육으로 치중되어 있다. 또한 수학·과학 영재들은 그들의 재능을 선보일 기회가 많지만, 예술영재들은 그 특성상 재능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선발기준 자체도 공개하지 않는 등 모호하기 때문에 음악영재의 발굴과 육성에 어려움이 많고 소홀이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1)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data/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1434)는 2014년 6월 30일, 공고 제2014-0155호「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즉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인증,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문사회,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영재들의 음악적 잠재력과 영재성을 기를 수 전문화된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영재들의 능력수준과, 내적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의 현 상황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음악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특이점을 기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음악영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음악영재 관련 문헌과 학술지, 선행연구자료, 각 영재교육기관의 홈페이지와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와 음악영재에 관련된 단행본과 학술지를 중심으로 영재와 음악영재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음악영재의 특성, 음악영재 교육의 필요성과 영재성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각 음악영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운영개요, 선발절차와 교육내용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각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분류하여 도표로 제시하고 각각의 교육과정의 차이점과 특이한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각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현 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영재교육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 음악영재들의 일컬을 수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예술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을 선발하여 위탁교육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청 영재교육원 및 음악영재학급의 교육과정을 연구한다. 또한 본 연구자의 주요 관심사인 광주광역시 소재 음악영재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원²⁾과 광주광역시

소재의 음악영재학급 즉, 하남초등학교, 연제초등학교의 음악영재학급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3. 선행연구의 고찰

먼저 우리나라 음악영재의 현황과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즉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DB검색 사이트(<http://www.riss.kr>)에서 ‘음악영재’를 통합 검색한 결과, 국내학술지 102편과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137편 등 비교적 많은 선행연구들이 검색되었다. 이를 최근 연구물부터 연도별로 정리하였는데, 음악영재 관련 연구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정 중심의 연구내용들이다.

이경진, 최진영, 최나영(2014)은 음악영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하여 그 결과 교육목표와 신규 교과목들을 추출하였다. 즉 6개의 기능영역, 4개의 창의표현 영역, 4개의 지식영역, 2개의 태도 영역 목표와 4개의 전공실기, 5개의 기초실기, 4개의 이론, 3개의 통합 및 사회활동 교과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음악영재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정유진(2013)은 음악영재 교육의 고찰과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영재 및 음악영재의 정의를 제시하여 그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와 국외 음악영재 교육의 현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와 국외의 음악영재 교육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알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부모·교사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미경(2010)은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현황에서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2009년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문제점으로 체계적 교육과정의 부재, 학생들 개별적 요구에 따른 선택적 개방형 교육과정의 부족,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부재를 말하였다.

정은주(2010)는 음악영재 선발과 프로그램의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음악영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2)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광주예술영재교육원.

http://lib.gen.go.kr/gecs/bb/board.php?subKey=10060100&boardID=ART_NOTICE_MC

음악영재 선발과정에 대해 음악영재 교육을 위한 교육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음악영재 선발이 실기능력 위주의 선발에서 잠재된 음악영재성을 판별하는 판별의 개념을 가진 다층적인 선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음악영재 교육은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혜숙(2009)은 음악예술영재 교육프로그램 비교 연구에서 음악영재 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국내 예술 중, 고등학교 및 대학부설 아카데미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악교육의 현황과 외국의 음악영재 교육기관을 비교하였으며 시사점으로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사의 전문성, 국가의 제도적 장치, 음악영재 선발기준과 대학 내 부설 음악영재교육 관련 학과 설치와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오택구(2008)는 음악예술영재 교육과정 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기관과 해외음악영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그 결과 실기위주의 선발과 교육이라는 점을 도출하였고, 실기 능력이 음악영재의 중요한 요소이나 음악잠재력이나 영재성을 키우고 음악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공실기 이외의 기타 음악적 소양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심층적 교육과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오주일(2004)은 음악영재 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한 음악 영재성 고찰에서 우리나라 외 4개국의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음악 영재성이 잠재된 능력보다 즉각적으로 표출되는 연주 능력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음악영재의 필수 요소를 음악적 지각력, 음악적 창의성, 음악적 기억력, 음악적 표현력은 물론 개인의 내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처럼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의 문제점을 실기위주의 선발기준임을 지적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교사의 전문성 및 체계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의 현 실태와 각 기관별 음악영재교육원 중 특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음악영재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차이점과 특이점을 기술하고 음악영재 교육의 개선점을 찾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음악영재와 음악영재 교육

이 장에서는 영재와 음악영재의 정의와 특징, 음악영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영재성과 창의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술하였다.

1. 영재 개념

영재란 ‘선천적으로 일반인과 다른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여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태진미, 2006: 11).

영재의 개념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고대 중국에서는 서기 615년 당 왕조 시기부터 어린나이의 조숙한 아동을 궁궐로 보내 재능을 연마시켰고, 일본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무라이 계급과 하층민 계급 아동들의 교육의 질이 달랐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고구려는 ‘태학’을, 백제는 ‘박사제도’를, 신라는 ‘화랑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였다. 통일신라는 ‘국학’을, 고려는 중앙에 ‘국자감’을, 또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학문을 부흥시켰으며, 과거제도를 두어 인재를 선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입학자격이 엄격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설치하여 양반을 포함한 평민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었고, 이를 유능한 인재등용의 문으로 삼아 나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이신동 외, 2009: 22-23).

이처럼 영재교육은 역사적으로도 고대부터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육의 흐름이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양성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의 영재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고찰한다.

1) 미국 문부성의 영재 개념

1972년 말랜드 보고서(Marland Report)³⁾에 근거한 영재의 개념은 ‘뛰어난 능력은

3) 말랜드(Marland, 1914-1992)는 미국의 교육자로 미 연방 교육국장, 교육차관보를 지냈으며, 영재교육에 관심이 많아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다. 그가 교육차관보를 맡았던 1972년, 영재교육에 관한 총괄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정의, 영재 교육과정 및 각종 정책 방안의 제안이 들어있다(강병직, 2013: 659).

갖고 있어서 높은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정규 학교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의 6가지 영역으로 영재성을 구분한다(태진미, 2006: 17-19). 즉 일반 지적 능력, 특수 학문 적성 영역, 창의적 생산적 사고 영역, 리더쉽 영역, 시각 및 공연 예술 영역, 그리고 정신 운동 능력이다.

이러한 미국의 영재 개념은 1978년 의회의 수정을 거쳐 1988년 영재교육법으로 제정 공포되었다. 1988년 영재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영재의 정의는 '지능, 창의성, 예술성, 리더십이나 특수한 학문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교육 이상의 교육적 서비스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의미한다(이신동 외, 2009: 29-31).

2) 렌줄리 세 고리 모형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교수이자 국립 영재교육 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렌줄리(J. Renzulli)는 영재성의 삼원 개념을 제안하였고 영재성을 평균 이상의 지적능력, 높은 과제 집착력, 창의성의 결합이라고 보았다. 이 세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각 요인이 모두 영재성 발휘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영재로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1)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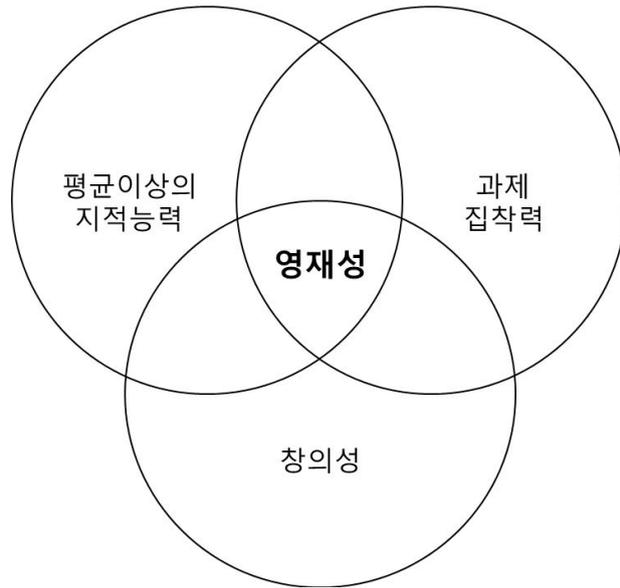
렌줄리는 웨슬러(D. Wechsler) 검사로 측정해 115이상의 지능을 가진 아동이면 영재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위인들 중에도 지능지수가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으므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지면 된다고 한다.

(2) 창의성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분야의 학문을 독창적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고 영재성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3) 과제 집착력

영재성의 탁월한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과제 또는 영역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성격적 특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재성의 개념에는 반드시 과제 집착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그림 1] 렌줄리의 세 고리 모형

영재성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성요소가 모두 상위 15%이내에 들면서 그 중 한 요소는 상위 2%안에 들면 영재로 볼 수 있으며 세 요소간의 공통부분이 클수록 영재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이신동 외, 2009: 60-61)

3)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가드너(H. Gardner)는 다중지능 이론을 제안하였고 사람의 지능 수준이 각 영역에

따라 독립적임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음악적 지능은 뛰어나나 논리, 수학적 지능은 부족할 수 있고, 또 공간적 지능은 탁월하지만 대인적 지능은 부족할 수 있다. 가드너는 각 분야의 지능이 독립적임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은 지능이 대표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태진미, 2006: 21-22).

- (1) 언어적 지능
- (2) 논리, 수학적 지능
- (3) 음악적 지능
- (4) 공간적 지능
- (5) 신체 감각 지능
- (6) 대인관계 지능
- (7) 개인 지각 지능

4) 우리나라 영재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 28일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2002년 3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영재의 정의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다음 6가지 사항에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 (1) 일반지능
- (2) 특수 학문 적성
- (3) 창의적 사고력
- (4) 예술적 재능
- (5) 신체적 재능
-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2. 음악영재의 개념

1) 음악영재의 정의

영재교육진흥법(1999)에 제시된 영재의 정의를 음악 분야에 적용해 볼 때 음악영재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로 하는 자’ 이고, 음악영재를 판별한다는 것은 결국 타고난 음악적 잠재력을 가진 자를 판별한다는 의미이다(태진미, 2006: 56). 그러나 영재성이라는 개념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음악적 잠재력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음악영재의 개념을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다.

스턴버그(Sternberg)는 영재성을 탁월성(excellence), 희귀성(rarity), 생산성(productivity), 가시성(demonstrability), 가치(value) 등의 다섯 가지로 기준에 근거해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영재란 자신의 분야에서 동년배 보다 탁월한 기량을 보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보기 힘든 희귀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진 잠재 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시성은 어떤 영역에서의 탁월성이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재능이 보이는 분야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스톤버그의 이론을 음악영재의 개념에 적용해 보면, 음악영재란 ‘음악적 재능이 탁월하고 희귀하며, 자신이 가진 소질을 바탕으로 뛰어난 생산적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자로서 가시적으로 그 기량이 증명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음악적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태진미, 2006: 52-56쪽 재인용).

최근 렌줄리의 정의에 의하면, 평균 이상의 음악적 능력, 음악적 창의성, 음악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 다차원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렌줄리의 이론에 의하면, 음악영재는 ‘음악 관련 지적 능력 및 실천적, 지적 능력이 높고 강한 성취동기, 호기심 등의 개인적 성향을 지니며, 음악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거나 나타낼 잠재력이 높은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현경실, 2006: 143).

태진미(2006)는 음악영재를 ‘선천적 음악적 소질을 바탕으로 양질의 음악 환경 속에

서 잘 발달된 음악성과 보편적인 재능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영재성을 성취할 수 있는 품성적인 측면과 생산적 성취 가능성의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본다(태진미, 2006: 56).

2) 음악영재의 특성

렌줄리의 다차원적인 세 고리 모형에 기초하여 음악영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현경실, 2006: 143-145).

<표 1> 렌줄리 모형에 기초한 음악영재의 특성

세 고리 모형	음악영재의 특성
평균 이상의 음악적 능력	① 음악 관련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② 예리한 관찰력 ③ 음악들 간의 차이를 쉽게 파악하는 능력 ④ 개념, 기법 원리의 이해 ⑤ 필요한 지식의 빠른 습득
높은 음악적 창의성	① 영감과 호기심 ② 다양한 주제에의 흥미 ③ 음악 응용 능력 ④ 독특한 아이디어 ⑤ 새로운 관점의 수용 ⑥ 탐구과제, 문제 발견력 ⑦ 새로운 것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 시도 ⑧ 아이디어의 유창성 ⑨ 문제해결, 산출물의 독창성 ⑩ 애매성, 불확실성의 수용 능력 ⑪ 복잡성의 수용 능력 ⑫ 독특한 아이디어 창출

음악과제에 대한 집중력, 성취동기, 목표 지향 등	① 모험심과 결단성 ② 불굴의 끈기 ③ 어려운 문제에의 도전 ④ 목표 지향성 ⑤ 주의 집중력 ⑥ 과제 완성을 위한 노력 ⑦ 흥미 ⑧ 내적 동기 ⑨ 지적 욕구 및 호기심 ⑩ 끝없는 의문 제기
-----------------------------	--

결론적으로 렌즐리 이론에 의한 음악영재들의 특성은 영재의 일반적 특성 범주에 포함되면서 음악의 특정 영역의 특징을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태진미는 음악영재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음 <표 2>와 같이 밝히고 있다(태진미, 2006: 75-86).

<표 2> 태진미의 음악영재 특성

구 분	내 용
타고난 감각을 바탕으로 한 음악재능	① 들었던 멜로디를 기억하고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 ② 음악 속에 존재하는 미세한 표현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는 민감한 지각 능력이 있다. ③ 리듬감이 뛰어나다.
정서, 성격적 특성	① 음악활동을 좋아하고 스스로 반복하고 연습하고 집중력이 있다. ② 작곡가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작품을 예리하게 이해, 분석할 수 있다. ③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음악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④ 일반인에 비해 감수성이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⑥ 끈기가 있고 음악활동에 몰입하고 과제 집착력이 있다. ⑦ 환경의 어려움도 극복할 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소신이 강하다. ⑧ 자신의 감정에 몰입을 잘한다. ⑨ 정서상 민감해 눈치가 빠르고 직감이 발달되어 있다.
<p>창의적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래나 춤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② 스스로 노래를 짓거나 가사를 바꾸어 부르고, 배운 노래를 간단한 악기로 연주하려고 한다. ③ 소리구성에 대한 지식 체계가 있다. ④ 음악 지식을 잘 활용해 창조적인 음악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 ⑤ 이론적으로 해박한 지식과 독자적인 음악 해석 능력이 있다. ⑥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다양한 예술분야에 능통하다. ⑦ 음악의 표현 구조와 원리에 대해 민감하다. ⑧ 음악적 이해력과 상상력, 표현력, 감수성이 풍부하다.
<p>기능적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주 시 정확한 음정과 소리를 낼 수 있다. ② 폭넓은 음악 활동의 수행 능력이 있다. ③ 소리, 음색 식별능력이 뛰어나다. ④ 협응 능력이 뛰어나다. ⑤ 어려운 훈련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한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연구(이미경 외, 2007)에서 음악영재들의 특성을 음악적 능력 중에서도 음악적 감각능력, 이해력과 표현력, 창의성, 태도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표 3>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음악영재들의 특성(이미경 외, 2007: 86)

구 분	내 용
음악적 감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절대음감이거나 상대음감이거나 서로 다른 음높이의 차이에 대한 감각에서의 예민함. ② 서로 다른 음색의 차이를 구별하고, 음색의 변화에 따른 정서적 표현의 차이에 예민함. ③ 리듬과 박자의 변화에 민감하고, 리듬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따라하며, 음악의 속도 변화에 따라 몸의 움직임은 통해 음악의 리듬적 변화에 정확히 반응함. ④ 순간적으로 들리는 배경 화음에 민감하고 연주에서 선율을 받치고 있는 화음을 쉽게 찾아냄. ⑤ 선율, 리듬, 화성을 듣고 기억하는 능력이 있으며, 악곡 전체를 기억함. ⑥ 음악에 맞춰 몸으로 잘 표현함.
이해력과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래나 악기 연주를 표현력 있게 연주함. ② 음악을 듣고 이해함에 있어 느낌의 폭이 넓고 깊음(미적 감수성이 뛰어남). ③ 음악을 듣고 형식을 쉽게 발견함.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창적이고 상상적인 음악적 아이디어가 있음. ② 주어진 선율 또는 리듬을 즉흥적으로 변주하는 능력이 있으며, 음악적 상상력이 뛰어남.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임. ② 모든 음악적 활동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보임. ③ 모든 음악적 활동에서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보임. ④ 음악 및 예술 전반에 대한 풍부한 교양과 진지한 미적 태도를 갖고 있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악영재들의 특성에 대한 예시일 뿐이지 모든 음악영재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

들이 영재의 범주에 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영재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음악영재 교육의 필요성

영재성이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음악 영재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음악적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용환, 2000; 김용희, 2010; 김용희, 2013; 승윤희, 2009; 태진미, 2006; Gardner, 1983). 음악영재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성이라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보통 어린 시절에 발견된다.

음악영재에 관한 441개의 문헌을 조사한 슈터(Shuter, 1968)는 음악가들 중 2-4세에 적성이 발견된 경우가 절반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는 7살 때부터 즉흥연주를 했고, 멘델스존은 11세부터 작곡을 능숙하게 했으며, 리스트는 9세에 이미 뛰어난 연주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김용희, 2013: 72). 이처럼 음악영재들은 영재성이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이 따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영재란 한 전문분야에서 매일 10시간씩 10년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음악 분야의 영재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음악영재들은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와 욕구가 강하므로 어떤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적으로는 불충분하다. 영재교육을 위한 면밀한 관찰과 학습 환경의 제공, 자극의 제시, 반응의 검토, 의도적인 예술경험의 제공 등 교육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음악신동, 음악영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이미경, 2005: 225-226).

유영명(1974)은 유명한 음악가들에 관한 연구 자료를 통해 이들이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한 연령은 유아기가 48%, 아동기가 30%, 청소년기가 22%로 유아기와 아동기 등의 비율이 78%로 현저히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음악교육에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태진미, 2006: 87쪽 재인용).

태진미(2006)는 조기 음악영재 교육의 필요성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구

분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첫째, 음악영재의 자아실현을 위해, 둘째 음악성 형성 민감기를 놓치면 성공적인 영재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셋째, 재능 발달의 반응 범위가 어린 시절에 정해지기 때문으로 기술하였다. 국가적 차원으로는 첫째, 음악영재의 효율적 선발을 위해, 둘째, 사교육비 절감, 셋째, 재능아 해외 유출 방지, 넷째, 국가적 유익을 위해서 음악영재 교육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태진미, 2006: 88-94).

음악적 재능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이 수반되어 질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영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은 타고난 음악적 잠재력을 가진 아동에게 영재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적 심화과정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 음악영재성과 창의성 교육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창의성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가치 있는 지식이나 생산물을 산출하고 활용하는 힘은 창의성에서 비롯되고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창안하고 유용한 산출물을 내려고 노력한다(Bagwell, 2008: 6).

같은 맥락에서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적으로 가치있는 유용한 결과물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음악적 창의성은 작곡과 즉흥연주와 같이 새로운 음악을 구성, 조직하는 능력뿐 아니라 음악을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생산해 내는 모든 유형의 음악활동에서 나타나는 사고의 과정을 말한다(정진원, 2010: 13).

창의성에 관련한 여러 문헌에서는 창의성을 4P의 측면으로 정의하는데, 4P란 인간(Person), 과정(Process), 산출(Product), 자극 또는 환경(Press, Environment)을 의미한다(Bagwell, 2008: 7-12). 다음으로 창의적 인간, 창의적인 사고 과정, 창의성을 발휘한 산출,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의 특성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다.

1) 창의적 인간

(1) 높은 내적 동기

- (2) 독창성
- (3) 은유적 사고
- (4) 상상력
- (5) 사고의 유창성·융통성·정교성
- (6) 독립심
- (7) 호기심
- (8) 모호함의 인내
- (9) 다양한 관심
- (10) 직관적 사고
- (11) 풍부한 감성
- (12) 유머 등

2) 창의적 과정

토렌스(Torrance), 월러스(Wallas), 판스와 오스본(Parness and Osborn), 트레핑거(Treffinger)등은 창의적 사고과정을 모형으로 설명했는데, 이 중 트레핑거의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모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이 모형에서는 창의성 발현을 6단계로 설명한다.

- (1) 기회 구성하기
- (2) 탐색하기
- (3) 문제의 틀 짜기
- (4) 아이디어 찾기
- (5) 해결책 개발하기
- (6) 수용하기

3) 창의적 산출

창의적 수준의 판단은 창의적 산출물에 의해 결정된다.

4) 창의적 환경

최근 교수학습체제모형에서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개인, 사회, 문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한다. 창의성에 미치는 요인을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였는데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에머빌(1983)	스턴버그와 루바트(1991)	니커슨(1999)
① 내적동기 ② 영역 관련지식·능력 ③ 창의성 관련 기술	① 지능 ② 지식 ③ 사고유형 ④ 성격특성 ⑤ 동기 ⑥ 환경	① 문제발견 ② 통찰 ③ 문제해결

창의성을 신장하는 사고양식은 상상력, 확산적 사고, 직관적 사고이고, 확산적 사고의 구성요소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포함하고, 문제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탐구력이 발휘되고 창의성이 길러진다(Bagwell, 한기순, 2008: 12). 따라서 창의성 교육은 교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성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창의성 교육이 시작이 된다. 즉 기존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문제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되고, 새로운 산출물이 만들어진다(Bagwell, 2008: 7 재인용).

음악영재들의 창의성 또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음악적 행위에 대한 허용과 기회가 주어질 때 발달되고, 음악적 지식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재해석을 통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태진미, 2006: 280-281).

태진미는 창조적인 음악가로 육성하기 위한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태진미, 2006: 238-239). 첫째, 새롭고 개성 있는 음악적 의도를 창출하려는 주도성을 갖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주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의 창작 기법을 익히고 아는 것이다. 셋째, 작품이나 연주 표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넷째, 음악 작품이나 연주자가 표현하는 바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기르고 창의적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섯 째, 악곡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시사점 탐색하는 것이다. 여섯 째, 악곡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탐색하는 것이다. 일곱 째, 악곡의 예술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덟 째, 작곡자나 연주자가 창출한 상징의 세계를 느낌을 통해 객관화하는 것이다. 아홉 째, 학생 자신의 음악적 의도를 구축해 아이디어를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열 번째,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음악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 노래, 악기연주, 창작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개성과 새로운 음악적 아름다움 표현하는 것이다. 열두 번째, 구체적 창작의 표현 원리를 알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음악영재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적 영재성 발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적 기량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이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학생들 자발적으로 연구하며 높은 음악적 기량을 터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음악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았던 과제 집착력이 있었다.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기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노력해왔다. 재능만 가지고는 음악영재가 될 수 없고 재능과 창의력, 인성적 특성의 삼박자가 맞는 창의적 지식의 생산자 육성을 위한 교육을 음악영재 교육이라 말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현황 및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III.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현황 및 교육과정 연구

1. 음악영재 교육기관 현황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기관은 첫째, 시·도 교육청 산하 음악영재교육원과 음악영재 학급, 둘째, 예술중·고등학교, 셋째, 문화관광부 소속의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넷째, 대학 부설 음악영재교육원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현황과 교육과정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1) 시·도 교육청 산하 음악영재교육원 및 음악영재학급 (서울·광주교육청 중심)

(1) 음악영재교육원

교육청 음악영재교육원은 초, 중, 고등 연령의 음악영재들을 선발하여 교육청 산하로 일반학교 및 예술학교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교육하며 연간 수업 시간은 70~100시간이다. 12월~2월 중에 음악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급 기준인원은 20명 내외이다.

특히 광주교육청 소속 예술영재교육원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위치하고 2009년 10월 개원하여 예향 광주의 음악영재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서울·광주교육청 영재교육원

지 역	운영주체	장 소	분 야	대상학년	학급수	총인원
	강서교육청	염창중	피아노, 작곡, 관현악	중1,2,3	1	20

서울	중부교육청	용강중	피아노, 관현악, 드럼	중1,2,3	1	20
	중부교육청	경복고	성악, 피아노	고1,2	1	19
	강남교육청	국립국악고	국악	중1,2 고1,2	1	20
	강동교육청	서울 잠전초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초3,4,5,6	1	20
	동작교육청	서울 강남초	국악	초5,6	1	20
	북부교육청	서울 선곡초	기악,관악	초5,6	1	20
	북부교육청	염광중	관현악, 피아노, 성악	중1,2,3	1	20
	남부교육청	전통예술고	한국음악, 뮤지컬	초5,6 중1,2,3	4	59
	남부교육청	서울 신 대림초	음악	초3,4,5,6	1	20
	남부교육청	대림중	피아노, 작곡, 관현악	중1,2,3	1	20
	서부교육청	아현산업 정보학교	실용음악	고1,2	1	40
	서울시 교육청	전통문화재단 영재교육원	국악	초3,4,5,6	1	31
	성동교육청	서울 화양초	뮤지컬	초5,6	1	20
광주	광주시 교육청	광주학생교육 문화회관	피아노, 관현악 성악, 국악	중1,2,3	2	20

(2) 음악영재학급

지역별, 영역별로 특성화된 학교에 설치, 운영하며 다양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수업은 방과 후,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에 2~4시간 정도 수업하고 12~2월 중에 교사 관찰 추천제에 의해 음악 잠재력이 있는 영재들을 선발하고 학급당 기준인원은

20명 내외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중, 고등학교에는 음악영재학급이 없으며 초등학교 2곳(연제초, 하남초)에서 금관, 목관, 타악기 음악영재를 교사관찰·추천제에 의해 선발하여 지역공동으로 동부·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 교육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서울·광주교육청 음악영재학급

지역	운영주체	장 소	분 야	대 상	학급유형	학급수	학생수
서울	성동교육청	서울 세종초	뮤지컬	초4,5,6	단위학교	1	10
	동작교육청	안현중	기악	중1,2,3	단위학교	1	20
	강서교육청	봉영여중	국악	중1,2,3	단위학교	1	20
	강동교육청	신암중	국악	중1,2,3	단위학교	1	20
	중부교육청	서울 신용산초	성악	초4,5,6	단위학교	1	20
광주	서부교육 지원청	하남초	금관, 목관, 타악	초4,5,6	지역공동	3	32
	동부교육 지원청	연제초	금관, 목관, 타악	초4,5,6	지역공동	3	24

(3) 음악영재 선발방법

교사·관찰 추천제에 의해 영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교사·관찰 추천제란 교사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추천을 통해 학생이 학교내외에서 나타낸 다양한 성취과정과 결과

등의 다양하면서도 총체적인 증거들을⁴⁾ 통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표 7 참조).

<표 7> 선발방법

기관구분	선발방법
교육청 영재교육원	1차 전형 -교사·관찰 추천제에 의한 선발 2차 전형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수행관찰 평가 (실기능력평가) -심층면접 -학교선정위원회의 심사
초등 지역공동 영재학급	교사·관찰 추천제에 의한 선발
초등 단위학교 영재학급	교사·관찰 추천제에 의한 선발
중등 단위학교 영재학급	교사·관찰 추천제에 의한 선발

2)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국가적 차원의 예술영재 육성체제 구축을 위해 200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설립한 최초의 국립 예술영재교육기관이며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의 음악인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음악적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전국의 초, 중등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교육 대상이며 한국종합예술학교 예비학교 성격인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초, 중등학교

4) 교사 추천 양식, 영재 행동 특성 체크리스트, 탐구능력 평가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수업 후 주말,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으며,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통해 우수한 예술가로 양성하기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소정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예술영재에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 10조 제1항에 의해 당해 연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대학)과정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표 8 참조).

(1) 선발대상 및 선발전공

<표 8> 선발대상 및 선발세부전공

분야	세부전공	선발대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선발인원		시험과목 반영비율
건반	피아노	1997.1.1 ~2004.12.31 출생자	27		전공실기 100
	오르간				
현악	바이올린	1997.1.1 ~2006.12.31 출생자	48	100	전공실기 100
	비올라	1997.1.1 ~2004.12.31 출생자			
	첼로	1997.1.1 ~2006.12.31 출생자			
	더블베이스	1997.1.1 ~2006.12.31 출생자			
	클래식 기타	1997.1.1 ~2004.12.31 출생자			
	하프	1997.1.1 ~2005.12.31 출생자			
관악	리코더	1997.1.1 ~2004.12.31 출생자	19		전공실기 100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타악	타악기	1997.1.1 ~ 2004.12.31 출생자		
	성악	1997.1.1 ~ 1999.12.31 출생자	2	
	작곡	1999.1.1 ~ 2002.12.31 출생자	4	곡쓰기 25 청음 5 피아노 10 면접(제출 작품) 60

(2) 전공별 실기 과제

<표 9> 전공별 실기 과제

세부전공	연주곡 및 작품		
	2003.1.1 이후 출생자	2000.1.1. ~ 2002.12.31 출생자	1997.1.1. ~ 1999.12.31 출생자
피아노	1. Mozart· Haydn· Beethoven Sonata 중 1곡(빠른 악장 한 악장) 2. 아래 작품 중 1곡 (10 분 내외) - Mendelssohn - Schubert - Chopin - Schumann - Liszt	1. Mozart· Haydn· Beethoven Sonata 중 1 곡 (빠른 악장과 느린 악 장 각 한 악장) 2. 아래 작품 중 1곡(10 분 내외) - Mendelssohn - Schubert - Chopin - Schumann - Liszt - Brahms	1. Mozart· Haydn· Beethoven Sonata 중 1곡 (전 악장) 2. 아래 작품 중 1곡 (10 분 내외) - Mendelssohn - Schubert - Chopin - Schumann - Brahms - Liszt - Rachmaninoff

오르간	선발하지 않음	1. J.S.Bach의 오르간 작품 중 1곡(코랄제외) 2. 낭만시대 작품 중 1곡(10분 이내)	1. J.S.Bach의 오르간 작품 중 1곡(코랄제외) 2. 낭만시대 작품 중 1곡 (10분 이내)
바이올린	1. 아래 작품 중 1곡 (카덴차 없이 빠른 악장) - Mozart Concerto 3·4·5번 - Haydn Concerto 1번 - Viotti Concerto 22번 2. 자유곡 1곡	1. J.S.Bach 무반주 Sonata와 Partita중 1곡 (빠른 악장과 느린 악장 각 한 악장) 2. Concerto 1곡 (빠른 악장)	1. Paganini Caprices 중 1곡 2. Concerto 1곡(전 악장)
비올라	자유곡 1곡(10분 이내)	Concerto 중 1곡 (Cadenza 포함 / 1악장)	아래 Concerto 중 1곡(1악장) - Walton - Hindemith (Der Schwanendreher) - Bartok
첼로	1. Concerto 1곡 (카덴차를 포함한 한 악장) 2. 자유곡 1곡	1. J.S.Bach Suite 중 1곡 (빠른 악장과 느린 악장 각 한 악장) 2. Concerto 1곡 (카덴차 포함한 한 악장)	1. J.S.Bach Suite 4,5,6번 중 1곡(Prelude & 대조되는 한 악장) 2. 아래 곡 중 1곡 (Concerto는 대조되는 두 악장) - Haydn Concerto 2번 (D Major) - Schumann Concerto - Dvorak Concerto - Shostakovich Concerto 1번

			-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전 악장)
더블 베이스	선발하지 않음	Concerto (한 악장)	Concerto (한 악장)
클래식 기타	자유곡 1곡 (10분 이내)	자유곡 1곡 (10분 이내)	자유곡 1곡 (10분 이내)
하프	1. N.CH. BOCHSA 40 Etudes Op.318 중 20번 2. 자유곡 1곡 15분 이 내 (Concerto 제외)	1. F.J. NADERMAN 7 SONATES 중 6번 1악장 (프렐류드 없이) 2. 자유곡 1곡 15분 이 내 (Concerto 제외)	1. F.J.DIZI 48 Etudes 중 16번 2. 자유곡 1곡 15분 이 내 (Concerto 제외)
목관	자유곡 1곡 (10분 이내)	자유곡 1곡 (10분 이내)	자유곡 1곡 (10분 이내)
호른	아래 3곡 중 1곡(전 악장 카덴차 제외) - R.Strauss Concerto No.1 - W.A.Mozart Concerto No.2 - W.A.Mozart Concerto No		
트럼펫	아래 3곡 중 1곡 - F.J.Haydn Concerto (전 악장) - J.B.Arban Variation No.4 - J.N.Hummel Concerto (전 악장)		
트럼본	아래 2곡 중 1곡 (전 악장) - E.Reiche Concerto No.2 - F.David Concertino		
튜바	자유곡 1곡 (15분 이내)	자유곡 1곡 (15분 이내)	자유곡 1곡 (15분 이내)

타악기	1. Snare Drum 자유곡 1곡 2. Marimba 자유곡 1곡	1. Snare Drum 자유곡 1곡 2. Marimba 자유곡 1곡 3. Timpani 자유곡 1곡	1. Snare Drum 자유곡 1곡 2. Marimba - Two mallet 자유곡 1곡 - Four mallet 자유곡 1곡 3. Timpani 자유곡 1곡
성악	선발하지 않음	선발하지 않음	1. 독일가곡 중 1곡 2. 이태리 가곡 중 1곡
작곡	선발하지 않음	시험 종목	시험 종목
		1. 청음 선율 및 화성 전반	1. 청음 선율 및 화성 전반
		2. 곡쓰기 주어진 주제에 의해 자유로운 형식과 악기 편성으로 곡 쓰기 (피아노는 반드시 포함)	2. 곡쓰기 주어진 주제에 의해 자유로운 형식과 악기 편성으로 곡 쓰기 (피아노는 반드시 포함)
3. 피아노실기 ['00.1.1~'01.12.31] - 고전파 소나타의 빠른 한 악장 -Bach : 3성 Fugue ['02.1.1~'02.12.31] - 고전파 소나타의 빠른 한 악장 - Bach : 3성 Invention	3. 피아노실기 ['99.1.1~'99.12.31] - 고전파 소나타의 빠른 한 악장 -Bach : 4성 Fugue		

		4. 면접 자기 작품에 대한 질의응답 - 음악적 자질 검사 - 즉흥연주 - 초견	4. 면접 자기 작품에 대한 질의응답 - 음악적 자질 검사 - 즉흥연주 - 초견
		※ 제출서류 피아노를 포함한 편성이 다른 작품 3곡 (피아노 독주곡도 가능)	※ 제출서류 피아노를 포함한 편성이 다른 작품 3곡 (피아노 독주곡도 가능)

위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곡 연주를 통한 기술적인 테크닉이 연마된 학생을 영재로 선발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지만, 자신이 연주한 작품에 대한 심층 면접과 초견 연주 등을 통해 음악적 자질을 검사하여 영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음악영재 선발 기준 자체가 뛰어난 전공실기 능력과 정형화된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평균이상의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입학 준비과정에서 실기시험곡에 대한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 또한 음악영재성의 관별 방법을 고난이도의 실기능력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잠재된 음악영재성이나 창의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좋은 환경과 국내 최고의 교수진에게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어 학생의 개인 실력 향상과 음악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 선발 사업: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건국음악교육연구소(KU Institute for Research in Music and Education) 부설 건

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KU Young Musicians Academy)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음악 영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음악교육과정을 제공하므로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고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은 현재 서울시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 선발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 총 100명은 건국대학교에서 8개월간 음악교육,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국악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교수진들에 의해 음악교육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음악영재들에게 실기, 이론 및 영재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1) 선발대상 및 선발전공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도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80%미만인 가정의 자녀라면 지원할 수 있고(표 10 참조), 일반영재(피아노, 관현악, 작곡, 성악) 60명, 미래영재 20명, 국악영재(기악, 성악, 타악) 20명으로 총 100을 선발하여 교육한다(표 11 참조).

<표 10> 선발대상 연령

구 분	내 용
피아노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관현악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성 악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작 곡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미래영재 ⁵⁾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
국악영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5) 미래영재는 음악에 소질을 나타내는 초등학교 3-5학년까지의 학생을 전공에 관계없이 선발하여 음악영재 교육을 실시함.

<표 11> 선발인원

영역	양악					국악영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성악	미래영재	기악	성악	타악
초등3학년	00명	00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명	00명	00명	00명
초등4학년								
초등5학년								
초등6학년			00명	00명	해당없음			
중등1학년								
중등2학년								
중등3학년								
고등1학년								
고등2학년			특별전형** (약간명)					
고등3학년								
소계	60명				20명	20명		
총계	100명							

건국 음악영재교육원의 모든 선발 절차는 학생선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을 거쳐 1차 음악적성 및 인지검사 2차 실기시험 및 심층 면접을 통하여 영재를 선발한다.

일반영재의 각 전공별 실기시험곡은 성악, 관현악, 작곡은, 자유곡 1곡이고, 피아노는 고전·낭만 시대 작품 중 자유곡 1곡을 암보로 연주하면 된다. 국악영재(기악, 성악,

타악)는 해당 전공 자유곡 1곡을 연주하면 되고, 예비영재는 아직 자신의 전공악기를 정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종선발은 선발위원들이 자체 개발한 음악표현능력검사 도구로 심층면접형식으로 이루어진다(표 12 참조).

<표 12> 전공별 실기시험곡

전 공	실기 시험 내용	
성 악	자유곡 1 곡 (암보하여 원어로 부름)	심층 면접
피아노	고전, 낭만시대 작곡가의 작품 중 자유곡 1 곡 (암보로 연주)	
관현악	자유곡 1 곡 (암보로 연주)	
작 곡	피아노 자유곡 1곡	
국악영재	기악, 성악, 타악 해당 전공 자유곡 1곡	
미래영재	심층 면접	

건국 음악영재교육원은 서울시와 함께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고, 미래영재과정을 두어 전공악기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다양하게 접하게 하여 그에 맞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음악이라는 학문자체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까지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음악영재를 선발하여 꿈과 희망을 주어 음악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선발 시험자체도 실기능력 평가와 함께 심층면접을 두어 음악적 잠재력이나 창의성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음악영재교육이 조기에 실시해야 효과가 크므로 선발대상 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강조된다.

4)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광주학생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내에 있는 예술영재 교육기관으로 광주지역 최초의 예술영재교육의 산실로서 2009년 2월 '광주예술영재교육원' 설치·운영 계획안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승인이 되어 2009년 10월 예술영재 제1회 예술영재 선발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약 400여명의 예술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1)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의 운영 개요⁶⁾

첫째, 예술적 감각과 재능이 있는 학생 조기 발굴하고,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예술인재 육성, 셋째, 우리 지역 예술영재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모델 제시이다. 특히 음악분야의 교육목표는 음악적 재능 있는 학생의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주능력의 극대화를 통해 예향 광주의 미래를 이끌 음악 인재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예술영재 교육 분야 및 교육내용

예술영재 교육 분야는 음악, 미술, 무용, 문예창작이며 음악영재 교육은 기악(피아노, 관현악), 성악, 국악으로 나누어져 있고 미술영재 교육은 디자인, 순수조형으로 나누어지고 무용영재 교육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문예창작영재 교육은 운문, 산문으로 나누어진다.

교육내용은 공통적으로 기초 이론 지도와 전공실기 지도,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 분야별 마스터클래스 및 특별 강의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2학급으로 운영되며, 음악이론(공통수업) 및 전공실기(개인레슨, 앙상블 수업)로 되어 있고, 세부 전공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사가 1:1 맞춤형 교육과 그룹별 실기 지

6) 광주학생문화예술회관 예술영재교육원 <http://gecs.gen.go.kr>

도, 창의성 계발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 수업은 평일 방과 후나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기간은 1년이다.

(3) 선발대상 및 선발전공

선발대상은 각 분야의 예술적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광주광역시 관내 중학교 재학생이며,⁷⁾ 사회통합지원자는 정원의 20% 이내로 우선 선발하며 사회통합지원으로 20%가 선발되지 못하면 일반학생 전형으로 충원한다.

각 분야별 세부전공 최대선발인원은 피아노, 관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트럼펫), 성악, 국악(관현악 및 성악) 각 7명 이내이며 총 인원은 20명이다(표 13 참조).

선발절차는 1차 전공실기전형과 2차 심층면접으로 나누어지는데, 전공실기전형은 전공별로 연주곡 2곡의 표현능력을 평가하고 심층면접은 전공분야의 이해능력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표 14-15 참조).

<표 13> 예술영재교육원 기초과정 신입생 선발전형

분야	세부전공	최대 선발인원	전형 내용	비고
음악	피아노	7명 이내	* 전공실기 - 2곡 연주 * 심층면접	
	관·현악	7명 이내		
	성 악	7명 이내		
	국 악 (관·현악, 성악)	7명 이내		

7) 학교장 추천 분야별 3명 있음.

<표 14> 전공별 실기과제

전공 구분		실 기 과 제 곡	비 고
피아노		제1곡: 고전 Sonata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중 빠른 악장 제2곡: 제1곡과 템포가 다른 느린 곡 (Sonata일 경우 한 악장)	① 모든 전공 실기는 두 곡을 외워서 연주함 ② 기악전공은 반복 없이 연주 ③ 피아노 이외의 악기는 본인이 지참 ④ 반주자는 각자가 동반 * 심사위원의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경우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음.
관현악		Sonata, Concerto 중 템포가 다른 두 곡	
성악		제1곡 : 동요 및 한국 가곡 제2곡 : 자유곡	
국악	관현악	※ 산조 중 제1곡: 진양조 제2곡: 자진모리	
	성악	제1곡: 단가 제2곡: 판소리 중 한 대목	

<표 15> 전형개요

구분		내용	배점	시간	준비물	비고
실기 전형	전공	전공별로 연주곡(두 곡)의 표 현능력 평가			개인별 악기 지참 피아노는 제외	
	실기	-제1곡 -제2곡	40 40			
계			80			
면접 전형	심층	전공분야의 이해능력 성실성	20			
	면접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계			100			

광주학생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이 설립된 지 약 6년 동안 광주지역의 음악영재들을 발굴하여 우수하고 전문적인 강사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 예술영재교육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음악적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영재 교육은 조기에 실시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모집대상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국한되어 있어 음악영재성 발견과 잠재력을 발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재 선발연령을 초등학생으로 낮출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타 지역의 영재교육기관들은 고등학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반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은 중등이상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예술고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므로 음악영재 교육의 연계성을 찾기가 힘들다.

5) 하남초등학교 음악영재학급

광주교육청에서는 수, 과학에만 치중되어 있는 영재교육에서 정보, 언어,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술분야인 음악영재육성을 위하여 음악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음악영재학급 운영은 학생 개개인에 알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가진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어 학생의 자아실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교사·관찰 추천제를 통하여 음악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하남초등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연제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교사·관찰 추천제란 교사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추천을 통해 학생이 학교내외에서 나타낸 다양한 성취과정과 결과 등의 다양하면서도 총체적인 증거(교사 추천 양식, 영재 행동 특성 체크리스트, 탐구능력 평가 등)들을 통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1) 하남초 음악영재학급 운영개요

음악영재학급은 3개 학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금관악기반, 목관악기반, 타악기반이다. 수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수업시간은 120시간이고 지역공동 운영으로 방과 후 매주 수요일 16시 20분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총 수업시수의 90% 이상 출

석 시 수료할 수 있다.

(2) 선발대상 및 선발전공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재학 중인 3, 4, 5학년 중 금관, 목관, 타악기에 음악적 소양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소속 학교 학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선발대상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학교별·학년별 추천인원의 15%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자녀, 한 부모가족자녀, 다자녀가정자녀, 최상위 계층 7가지로 제한된다.

하남초등학교는 선발전공으로 <표 16>과 같이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로 나누어져 있다. 모집인원은 금관악기부분 세부전공으로 트럼펫, 트럼본, 호른, 유포늄 및 튜바 각 4명씩, 목관악기부분 세부전공으로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각 4명씩, 타악기부분 세부전공으로 드럼 4명으로 8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2명을 선발한다.

<표 16> 선발전공 및 선발인원

선발 분야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합계
	트럼펫	트럼본	호른	유포늄/튜바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드럼등	8개 악기
모집 정원	4	4	4	4	4	4	4	4	총32명

(3) 선발절차

선발절차는 1차와 2차 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1차 전형은 5인 이상의 학교추천위원회를 조직하여,⁸⁾ 지원할 학생을 대상으로 관찰평가 위원(담임)에 의해 학교추천위원회

8) 위원장1, 관찰·추천제 교사1,지도교사 3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의 선발 준거 자체에 의거하여 관찰평가가 이루어지고, GED 시스템의 교사추천서를 작성한다.⁹⁾ 영재 관찰추천 선발 담당교사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점수를 GED 시스템에 수행평가나 포트폴리오를 입력하고, 영재성 검사는 KEDI 에서 제공하는 평가지로 학교별로 실시한다. GED시스템에서 평가기준 및 반영 비율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고, 산출된 성적에 따라 최종 추천 인원을 선발한다.

1차 전형에서 학교추천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아동들은 2차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데(표 17 참조), 음악영재학급에서 개발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와 실기능력 평가를 받고 교사관찰항목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받은 후에 음악영재학급으로 선발 된다(표 18 참조).

<표 17> 영재학급 선발절차¹⁰⁾

전형	단계	과정	주요내용
준비	선발 공고 (9.22)	①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사관찰추천 선발공고	* 초4~초6학년 32명 (2014년 기준 초3~초5학년)
	선발 공고 안내	② 학생선발 공고 안내	* 2014. 9. 26(금) ~ 10.17(금)
1차 전형 학교추천위 원회 (각 학교)	1단계 교사관찰추 천 (~11.28)	③ 학교추천위원회 구성 및 선발 계획 수립	* 2014. 10. 3(금)까지 * 담임교사 (2014년 기준 초3~초5 지원학생 담임) * 공고 및 홍보기간: 2014.9.22. (월)~10.17(금)
		④ 교사관찰평가위원 구성 ⑤ 학생 및 학부모 홍보	(교사 GED연수 안내 및 학부모 안내장,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적 극적 홍보)
		⑥ 관찰평가 대상자	* 지원서 접수기간 : 10.6(월) ~ 10.17(금)(GED 시스템)

9) 여기서 교사추천서는 체크리스트 양식이다.

10) 2015 하남초등학교 음악영재학급 선발 계획에 근거한 자료이다.

		지원서 및 자기소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0. 20(월)까지 지원자 현황 제출 서식 1 참조(제출처: 영재교육기관(하남초)) * 교사관찰평가기간:2014. 10.20(월)~11.28(금) ·교사관찰평가 위원은 선발 준거에 의거 관찰평가를 실시하고 11월 28일까지 GED시스템의 교사추천서(체크리스트) 작성 - 업무담당교사는 11월 28일까지 GED시스템에 담임교사 입력 오류 내용 점검
		⑦ 학생관찰평가	
		⑧ 영재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2. 6(토) 10:00~11:30 - 장소: 하남초등학교 - 대상: 지원학생 (6학년 포함) - 방법: 교육청 제공 평가지
	2단계 영재성 검사 및 1차 선발	⑨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및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2. 8(화) - 학교자체평가준거에 따라 학교당 해당학년 재적수의 10%미만 학생 선발 - 하남초는 영재교육 운영학교로서 최대 배정인원을 다른 학교의 2배로 배정할 수 있음 -학교별 최대 배정인원의 15% 범위 내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추천 가능
		⑩ 영재교육기관에 최종 추천 대상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2. 12(금)(GED 시스템 및 공문발송)
2차 전형 영재교육기	1단계 선발	①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관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2. 20 (토) 09:00 - 장소: 하남초등학교

관선발 (하남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교추천위원회 추천학생 - 방법: 연주기능 실기평가
	2단계 선발	②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2. 20 (토) 11:00 - 모집정원 선발 - 장소: 하남초등학교 - 대상: 지원학생
	최종 선발	③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2. 22(월) 15시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2014. 12. 23(화) 오후 : 최종합격자 발표 (하남초등학교 홈페이지탐재)

<표 18>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

연번	평가기준	반영 비율	동점자 처리	작성담당자	실시	비고
1	교사추천서 (체크리스트)	30%	2순위	담임교사	필수	KEDI제공
2	영재성 검사	50%	1순위	학교추천위원회	필수	KEDI제공
3	수행관찰평가		4순위	학교추천위원회	선택	
4	창의적인 적성 검사 체크리스트 및 자기소개서	20%	3순위	학생 본인	필수	KEDI제공
5	포트폴리오		5순위	학교추천위원회	선택	
6	음악영재성 교사 관찰지		6순위	담임교사	선택	

광주교육청은 2010년 음악영재교육의 확대를 위해 지역공동으로 음악영재학급(하남초, 연제초)을 2곳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음악영재학급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 관찰·추천제 도입에 따른 내실 있는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영재학급의 특색에 맞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영재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공분야가 관악기와 타악기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른 세부전공들의 음악 영재성이 발견된 아동들의 교육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고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만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음악영재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한 현실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6) 연제초등학교 음악영재학급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연제초등학교 음악영재학급은 음악영재들의 잠재력을 조기 발굴, 계발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음악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고 예술적 자질을 함양하여 음악성과 창의성 신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하남초등학교와 같이 교사·관찰 추천제로 음악영재들을 발굴한다.

(1) 연제초 음악영재학급 운영개요

영재학급은 3학급(목관악기반, 금관악기반, 타악기반)으로 되어있고, 지역공동 영재학급으로 교육기간은 1년(10개월)이며, 교육시간은 110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수업이 진행되며 전체 수업시간의 80%이상을 수강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가 인정된다.

영재학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영재학급에 담당교사와 실기지도교사(지도강사)를 두며, 실기지도교사의 경우 가급적 기악 분야 실기 능력이 우수한 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부강사를 선정·임용할 수 있다.

(2) 선발대상 및 선발전공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중 목관, 금관, 타악기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동들이 선발대상이며 연제초등학교는 선발전공으로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로 나누어져 있고 모집인원은 금관악기부분 세부전공으로 트럼펫, 트럼본, 호른, 유포늄 및 튜바 각 4명씩, 목관악기부분 세부전공으로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각 4명씩, 타악기부분 세부전공으로 드럼 4명으로 8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2명을 선발한다(표 19 참조).

<표 19> 선발전공 및 선발인원

선발 분야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합계
	트럼펫	트럼본	호른	유포늄 /튜바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드럼 등	
모집 정원	4	4	4	4	4	4	4	4	총 32명
	16명				12명			4명	

(3) 선발절차

연제초등학교도 하남초등학교와 같이 1차 전형에서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해 영재아를 선발하고, 2차 전형에서 선정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실기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 심의 확정한다.

2차 전형의 1단계 실기평가 기준표는 자유곡 50점, 초견 악보 30점, 리듬카드 2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표 20 참조), 실기 자유곡은 1곡 준비하고 모든 연주는 반주 없이 암보로 연주해야 되며 악기는 개별지참이다. 2단계의 심층면접은 영재성 30점, 음악성 30점, 인성 30점, 태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표 21 참조), 실기평가와 심층면접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표 22 참조).

<표 20> 실기평가 기준표

항목	자유곡	초견악보	리듬카드	합계
배점	50	20	30	100

※ 실기 자유곡 1곡 준비. 모든 연주는 반주 없이 암보로 연주, 악기 개별지참.

<표 21> 심층면접 기준표

항목	영재성	음악성	인성	태도	합계
배점	30	30	30	10	100

<표 22>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항목	실기평가	심층면접	합계
반영비율	70%	30%	100

하남초등학교 음악영재학급과 같이 2010년에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해 영재아를 선별하고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교육에 의지하던 음악조기교육을 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 음악교육의 수혜자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다양한 전공분야의 음악영재들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중·고등학교까지 영재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2. 음악영재 교육과정

1) 음악영재교육원, 음악영재학급 교육과정

음악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교육과정의 구성은 대체로 해당 학교에서 음악영재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로 방과 후나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게 되고 대부분 1년 과정이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은 음악이론, 전공실기, 음악활동, 향상음악회, 창의·인성교육,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음악영재교육원 별로 교육과정은 지역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음악이론 과목은 시창·청음, 화성학, 음악사, 국악이론 등 음악관련 기초 이론을 수업하며, 전공 실기는 1:1 맞춤형 개인지도로 수준별 심화학습이 이루어지고, 앙상블, 마스터클래스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음악영재의 경우 전공실기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보다는 실기 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음악 활동으로는 합창, 컴퓨터음악, 창작과정활동이 있다.

개인 실력 성취도와 폭넓은 연주 경험을 위해 향상음악회가 이루어지고 1년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수료 음악회를 통해 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받게 된다. 창의·인성교육이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전체학생들 대상으로 나의 성격 바로알기, 진로탐색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교육내용은 위의 범주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려는 시도 중에 타 분야에 대한 이해 수업을 통해 예술 영재들의 시각을 넓히려는 시도가 있는데 강서교육청이나 동작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음악강사와 수학강사를 서로 교환하여 수업하는 수학과 미술, 음악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이미경, 2010: 174-175). 각 학교 별 프로그램은 다소의 내용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교육내용은 위의 범주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2)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운영기간은 3월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이며 수업시간은 방과 후, 주말이

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게 된다. 개설 교과목은 전공실기, 시창·청음, 음악 문법(화성학), 윌레음악회, 듀오, 오케스트라가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성격의 교육과정으로 실기위주의 과정이며 전공실기는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진들에 의해 개인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창·청음은 단순히 리듬만 읽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리듬, 화음, 음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음악문법은 분반시험을 통해 능력별로 반 편성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이상 선택수강 가능하다.

폭넓은 무대 경험과 연주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하에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악기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윌레 음악회를 실시하고, 윌레 음악회는 1년에 1번은 꼭 연주해야 하는 필수과정이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학생들의 세련된 연주기교와 풍부한 음악적 기량을 마음껏 발산 할 수 있도록 공개연주회를 개최한다. 오케스트라와 정기 연주회를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때에 따라 학생들끼리 실내악을 하기도 한다.

3)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교육과정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일반영재(피아노, 성악, 작곡, 관현악)의 경우 전공실기레슨, 음악기초이론, 기악양상블, 마스터클래스, 합창, 특강 및 향상음악회로 진행되고 미래영재의 경우 피아노레슨, 전공레슨, 창의성 프로그램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미래영재의 경우는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1학기 전공실기시간에는 기초 피아노 레슨 수업을 받고 여름방학 전공도입과정 후 2학기에는 전공 실기레슨과 창의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예비영재 창의성 프로그램이란 예비영재 교수진이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음감 및 리듬에 대한 기초 음악성, 악기연주, 창의력 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3 참조). 본 수업은 2주에 한번 100분간 진행으로 15명의 예비영재들이 수업을 받고 수업 진행 동안에 선생님들의 비디오 리코딩(video recording)과 수업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는 매 수업시간마다 예비영재들의 반응

과 개개인의 모습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수업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수업 진행의 속도나 세부적인 부분들이 매 수업 때마다 연구되어지고 연구결과는 바로 다음 수업에 반영된다(정은주, 2010).

<표 23> 예비영재 창의성 프로그램

기초음악성 (음감, 리듬감)	① 듣고 따라서 노래하기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음감 및 리듬감, 오디에이션 훈련.
악기 연주를 통한 창의적 표현	① 다양한 타악기 연주를 통한 기본 음악 성 훈련. ② 위계적 난이도의 리듬 가락 연습곡들을 통하여 기본적인 리듬, 가락 패턴을 익히기. ③ 기본 패턴의 변형 및 즉흥연주를 통하여 음악표현의 유연성을 기르기. ④ 타악기 연주 주법을 익히고 합주를 위한 앙상블 방법을 익히기. ⑤ 여러 가지 난이도의 합주 악곡을 익히고 완성하여 연주하기.
창작활동	① 다양한 소리와 소리의 속성을 구성하여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하기. ② 탐색-표현-구성-기보를 통하여 창의적 음악 산출물을 완성하고 연주해보기. ③ 그림, 도식, 도표 등을 통한 다양한 기보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 음악 아이디어로 끌어내기.

4)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의 중점 교육내용은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고, 연주능력 신장, 시창·청음 및 음악이론 등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영재학급은 2학급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지고 기초과정 수업은 시창·청음, 음악이론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화과정은 개인레슨, 앙상블 수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외 현장 체험 활동과 마스터클래스, 특별 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다(표 24 참조).

전공 실기는 최고의 연주 전문가가 1:1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되며 분야별로 최고의 교수, 교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도하고 있다. 현장체험활동으로는 뮤지컬 캣츠 공연 관람, 발레단 공연 관람 등 음악과 문학, 무용과 음악의 연계활동 수업으로 예술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 강의 프로그램은 통합,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 평가는 실기평가, 수행평가, 음악평가로 나누어지고 1년에 2회 연주회를 개최하는데 음악적·창의적 표현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로 갖는다.

1학기말에는 향상음악회로 학생의 실력향상 정도를 확인하고 다음 학기 지도 방향에 반영하며, 학생 상호간 음악적 표현 기회를 공유하고, 2학기말에는 수료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수료연주회는 창의적 산출물 발표 대회의 성격으로 학생이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음악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또한 학부모를 초대하여 자녀의 산출물과 발표 활동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수업은 평일 방과 후나 토요일에 이루어지고 교육기간은 1년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표 24> 시간 운영 계획

과정	과목	교육	일시	시간
기초과정	시창·청음	2주1회	토요일 (09:30~11:00)	2시간
	음악이론	2주1회	토요일 (11:30~13:00)	2시간
기초 심화과정	개인레슨	주 1회	화·목요일 (17:00~21:00)	2시간
	전공별 앙상블	2주1회	토요일 (09:30~13:00)	2시간
	체험활동 및 행사활동		학기별 계획 수립	

5) 하남초, 연제초 음악영재학급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음악과 인성교육으로 하며 전체 수업시간의 80%~90% 이상을 수강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 및 연주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인성지도를 강화하고 인문학 및 문화예술관련 특강, 프로젝트 학습, 영재캠프,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영재교육이 입시준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창의성과 영재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음악 실기 지도는 금관악기(트럼펫, 트럼본, 호른, 유포늄/튜바), 목관악기(클라리넷, 색소폰, 플룻), 타악기(타악기)로 편성하고 파트별 4명 이내, 개인별, 수준별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연주곡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레슨한다. 그 외 프로그램은 음악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함으로써 음악영재로서의 예술적 감수성과 폭넓은 시야를 기를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며 학기마다 연주회를 실시하되 1학기는 향상음악회, 2학기는 수료연주회를 개최하여 음악적·창의적 표현 능력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는 연주회 형태로 실시하고 이를 시수에 반영하며, 영재학급 수업공개의 날을 년 2회 실시하여 학부모에게 학생의 활동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재학급 지도교사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확산하는 장을 마련한다.

수업시간은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운영을 원칙으로 연간 110시간~120시간으로 편성하고, 40분 수업, 블록타임 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특별 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실시한다.

3. 음악영재 교육현황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교육현황을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선발연령, 전공, 교육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서울·광주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지역	기관명	선발 연령	전공분야	교육과정
서울	교육청 영재교육원 음악영재학급	초등3 ~ 고등2	피아노, 관현악, 성악, 작곡, 실용음악, 뮤지컬 등	음악이론-시창·청음, 화성학, 음악사, 국악이론 등. 음악활동-합창, 컴퓨터음악, 창작과정활동 등, 전공실기, 향상음악회, 앙상블, 마스터클래스, 창의·인성교육, 체험학습, 진로탐색, 타 교과 이해하기 등.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초등3 ~ 고등3	건반, 관현악, 성악, 작곡, 타악	전공실기, 시창·청음, 음악문법(화성학), 월레음악회, 듀오, 오케스트라
	건국음악영재교육원	초등3 ~ 고등1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미래영재	일반영재-전공실기, 음악기초이론, 기악앙상블, 마스터클래스, 합창, 특강 및 향상음악회 미래영재-피아노레슨, 전공레슨, 창의성 프로그램
광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중등	피아노, 관현악, 성악	기초과정-시창·청음, 음악이론 심화과정-개인레슨, 앙상블 수업 현장체험활동, 마스터클래스, 특별 강의 프로그램, 향상음악회, 수료음악회
	하남초연제초 음악영재학급	초등4 ~ 초등6	금관, 목관, 타악	전공실기레슨, 특강, 프로젝트 학습, 영재캠프, 현장체험학습, 향상음악회, 수료음악회

위 <표 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영재 교육과정은 음악의 기초이론부터 실기 레슨과 앙상블, 음악회 등 실기와 이론을 함께 병행 학습하고, 발표를 통해 무대의 기량을 기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음악영재 교육과정 및 교육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확대와 다양한 전공 개설이 필요하다. 음악영재교육원의 전공 분야를 보았을 때 서양음악 이외에 실용음악과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의 수혜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광주 교육청 중심의 영재교육기관은 전공과목이 제한되어 있어 실용음악이나 재즈 등의 분야에 영재성이 발견되면 다른 지역이나 사설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우리 지역의 영재들을 타 지역에 빼앗기게 되므로 우리 지역 영재교육기관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세부전공의 분야를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전공실기, 시창청음과 기초음악이론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남초, 연제초 음악영재학급의 교육과정은 주로 전공 레슨 위주이며 실기 레슨 중에 여러 가지 음악이론들을 학습한다고는 하나 음악영재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음악이론 과목들과 실기를 접목하여 영재들의 음악성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최근에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컴퓨터 음악, 타 교과의 이해를 통하여 타 프로그램과 연계를 두고 다차원적인 예술교육에 접근하려고 노력중이며 현대사회의 흐름인 행복, 소통, 창의성이라는 변화에 발맞추어 진로탐색 교육을 통하여 미래 음악가로서의 자아실현과 사회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으나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셋째, 음악영재들의 선발과 관별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교육 기관의 음악영재교육원은 선발대상이 초등3~고등학생까지로 미취학아동의 영재교육기관은 없다. 음악영재성은 조기에 발견되고 잠재력이 훈련을 통해 계발되어진다고 볼 때 선발연령을 미취학 아동으로 낮출 필요성이 요구되고 영재성 관별 방법 또한 고난이도의 실기 오디션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은 미래영재과정을 두어 심층 면접위주의 선발로 잠재력 있는 음악영재를 모집하고 있다. 영재성 발견을 위해 맞춤형 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수업하고 특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은 선발대상이 중학생이므로 조기에 음악 영재성이 발견된다고 하여도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제·하남초등학교의 음악영재학급

은 영재선발 과정에서 교사 관찰·추천제의 방식에 의해 선발하고는 있으나 영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몇 명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받고 있어 음악영재학급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영재 판별 기준의 객관성이 요구된다. 또한 영재 선발에 있어 교사의 판단력 부족이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음악영재 교육의 연계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서울의 공교육 기관의 음악영재 교육은 초등~고등학생까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에 비해 사설음악교육기관도 있어 음악영재의 노출과 교육의 기회가 많다. 그러나 광주 지역교육청 소속의 음악영재학급의 전공과목을 볼 때 금관악기(트럼펫, 트럼본, 호른, 유포늄/튜바), 목관악기(클라리넷, 색소폰, 플룻), 타악기(드럼 등) 분야로 중등과정의 인원을 선발하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과의 교육의 연계성은 플룻, 클라리넷, 트럼펫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야가 다르므로 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등학교때 음악영재라 하더라도 중등·고등과정의 연계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영재성이 발휘된다고 보았을 때 일반 학교생활을 해 나가기도 벅찬 아이들에게 사설 음악영재 교육기관이 편중되어있는 서울까지 레슨 받으러 와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시간상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음악영재교육의 연계성을 위한 시스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음악영재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운영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2주에 1번씩 음악이론수업과 주 1회 전공실기 레슨을 받고 하남초·연제초 음악 영재 학급에서는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영재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재들은 일반학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시하다보니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수업을 듣게 되므로 이런 수업의 형태로는 음악영재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잠재력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주중 방과 후나 매주 주말을 통하여 수업을 병행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수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여섯째, 음악영재 교육기관과 담당 교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담당 실무자의 진출입이 될 경우 영재교육의 지속성과 방향성이 바뀔 수 있게 되므로 담당교원의 진출입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교원의 양성과 담당 행정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음악영재의 개념과 음악영재들의 특성, 음악영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중심의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현황과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서울 소재 교육청영재교육원은 성동영재교육원(서울 화양초) 등 총 14곳이며, 서양음악 이외에 실용음악,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전공과목이 개설 되어 있는 곳도 있다. 광주 소재 교육청영재교육원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단 1곳이며, 서양음악 이외의 다양한 음악전공과목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음악영재학급이 서울에는 세종초 영재학급 등 5곳이, 광주에는 하남초와 연제초 등 2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이 외 대학부설 음악영재교육원이 광주에는 없지만, 서울에는 건국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음악영재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영재들의 음악적 잠재력과 영재성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영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음악영재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한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음악영재들은 음악적 잠재력과 영재성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의해 발전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의 연계성이 없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부재로 영재성이 사장되거나 타 지역으로 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세부전공과정을 만들어 음악교육의 연계성 확보가 시급한 현실이다.

둘째, 음악영재 교육은 고난이도의 테크닉만 요구하는 실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창의성과 타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음악영재는 조기에 발견이 되므로 음악영재 교육의 선발 대상을 미취학 아동으로 낮출 필요성이 요구되고 또한 그에 알맞은 수준별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음악대학에서 대학부설 음악 영재 아카데미를 만들어 지역의 음악영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정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음악영재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광주광역시 음악영재교육의 발전 방안 모색과 더불어 영재 교육기관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성장까지 이루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직(2013). 미국 영재교육법률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3(5), 649-669.
- 김용환(2000). **세계의 주요 예비학교 현황 연구**. 서울: 문음사.
- 김용희(2010). 음악영재 아동의 특성 및 교육. **홀리스틱교육연구**, 14(2), 43-62.
- 김용희(2013).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음악교육연구**, 42(1), 71-86.
- 김혜숙(2009). 음악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오주일(2004).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한 음악영재성 고찰.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택구(2008). 음악예술영재교육과정 비교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진 외 2명(2014).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교육목표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4(5), 807-826.
- 이미경(2005). 최근에 일고 있는 음악영재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음악과 민족**, 29, 255-275.
- 이미경(2007).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II)**.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 이미경(2010).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현황. **음악교육연구**, 39, 157-182.
- 이신동 외 2명(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용석(2008). 국내 음악영재교육의 실태 및 발전방향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유진(2013). 음악영재교육의 고찰과 개선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은주(2010). 음악영재 선발과 프로그램의 국제비교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진원(2011). 음악영재교육과정 모형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0(1), 1-31.

- 승윤희(2000). **음악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21세기 음악교육학 총론.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편).
- 태진미(2006). **음악영재교육**. 서울: 예종.
- 태진미(2009). 국내 음악영재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탐색. **영재교육연구**, 19(3), 729-758.
- 태진미(2010). 영재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6, 241-273.
- 현경실(2006). **음악영재의 이해와 선발**. 서울: 민음사.
- Bagwell, Mallory(2008). **창의성의 이해(Creativity)**. 한기순 역, 한국교총 영재교육원 교원연수자료.
- Gardner, Howard(1983). **Frames of mind**. New York: Basic Book.
- 웹사이트
-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http://musicnedu.konkuk.ac.kr/html/home.htm>, 2015년 3월 5일 검색함.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http://gecs.gen.go.kr/>, 2015년 3월 5일 검색함.
- 문화체육관광부 입법·행정예고
http://www.mcst.go.kr/web/s_data/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1434, 2015년 3월 15일 검색함.
-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https://ged.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2015년 3월 10일 검색함.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http://kniga.karts.ac.kr/>, 2015년 3월 10일 검색함.